

#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잘 찍는 법 1

정 해 원

Studio FingerMark(스튜디오 핑거마크)

## 1. 사진 잘 찍는 법이란?

지난 글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과연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것일까?

카메라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는 펜으로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카메라로 일상을 남기기 쉬워졌다. 누구나 한 번 쯤은 셔터를 눌러보았을 것이고, 사진을 통해 무언가를 기록해 보았을 것이다. 이렇듯 쉽게 접하게 된 카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진이란 매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의문점이 바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한 마디로 간략하게 답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많이 찍고, 많이 볼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지만, 누구나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대답이다. 또 누군가는 의아해 하기도 한다. 과연 많이 찍고, 많이 본다고 하여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누구나 알고 있는 막연한 답도 정답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해 접근해 보도록 하자.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접근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사진을 찍는 동기와 관심을 토대로 자신이 담고자 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감성적인 접근 방식과, 기계적인 카메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



작법을 익히는 물리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인 감성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한다.

## 2. 사진에게 다가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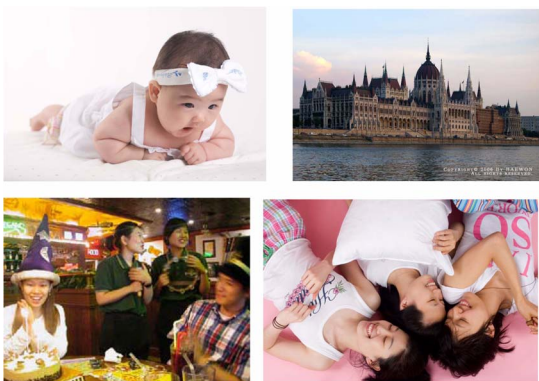
### 2.1 사진에 대한 흥미

처음 사진에 관심을 갖고 다가서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흥미롭다. 손에 쥐고 있는 이 카메라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진으로 남길 수 있을 것만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 멋진 작가들처럼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초 없이, 준비 없이 한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찍히게 되는지를 시작으로 카메라의 원리, 사진의 구도 등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순서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셔터 한 번 눌러보기도 전에 지쳐버려서 그 관심이 사그러들기 십상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 찍은 사진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포기하지 말고 당분간 꾸준하게 사진을 찍으며 버텨내야 한다. 이 정도의 노력도 없이 내가, 혹은 남들이 감탄할 만한 사진을 얻으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유연하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중의 하나가 바로사진을 찍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 2.2 사진을 찍는 목적과 이유

‘당신은 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과 같이 모든 물건의 구입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카메라 역시 무엇인가를 찍기 위해서 구입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촬영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찍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며 세상의 곳곳을 찍고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상을 꼼꼼히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구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셔터를 눌렀으며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결과물에 식상해 지면서 한결같이 ‘더 잘 찍는 법’에 대한 관심이 더해간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이유를 발견해 내야 한다. 어떤 일에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생겼을 때 그 행동에 힘이 실리기 마련이다. ‘내가 이것 왜 찍어야 하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 해답을 얻었을 때 당신의 사진은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미지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감동했던 풍경을,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즐겁게 담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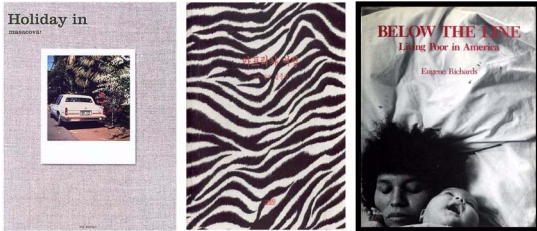
## 2.3 다른 사람들의 사진 보기

카메라의 발전 못지않게 급성장한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덕분에 예전과 다르게 오늘날은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세상 곳곳의 사람들이 각자의 카메라로 담은 수많은 사진들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사진 동호회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에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사진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체험하고, 그들의 감정을 멀리서나마 느껴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감상하고 접하는 것은 보다 넓은 안목을 길러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들은 개인적인 취향과 목적을 위해 촬영된 사진들이므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사진을 접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 상업사진이나 예술사진 등의 전문가들의 사진이 주는 도움은 또 다른 커다란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책을 추천하자면 잡지매체를 들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광고사진, 패션 사진, 예술사진 등의 다양한 장르의 사진이 한 권에

담겨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패션잡지에는 당대에 소위 잘 나간다는 작가들의 사진이 그 시대의 유행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라이프(LIFE), 타임(TIME) 등의 잡지에는 세계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이 앞 다투어 실려 있다. 이러한 잡지매체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작가들의 사진을 감상하는 것은 그 곳에 가지 않고도 그들의 시선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사진감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작가들의 사진집이다. 물론 앞서 말한 잡지매체만큼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한 번에 접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특히나 상업성 없는 출판을 기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판 관행 때문에 국내 작가의 사진집은 더욱 접하기 어렵다. 하지만 체험 없이 어떻게 예술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진집에 담긴 작가들의 집약된 노력의 결정체들을 통해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때 우리는 같은 사물도 달리 볼 수 있는 감성의 눈을 뜨게 될 수 있다. 그들의 시선을 이해하려는 노력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그들의 시선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 3. 대상에게 다가가기

조금 본격적으로 사진 찍기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 ‘무엇을’ 찍을지에 대하여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찍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진이란 실존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매체이다. 그림이나 음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고 눈앞에 펼쳐져 있어야만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담을 수 있다(디지털 합성의 개념은 제외한다.). 현재의 상황을 순식간에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현존하는 것만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공통적인 의문점을 갖게 된다.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찍히지 않는 것일까?’

이는 사람의 눈의 시점과 카메라 렌즈를 통해 맺히는 상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눈앞에 보여 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중에 보고자 하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낮은 언덕에 멋진 소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나무를 집중하여 바라보게 된다. 물론 소나무 뒤에는 다른 나무들이 있거나 멀리 산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주변 환경은 특별히 인식하고 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반면 카메라의 렌즈는 정해진 화각안의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다. 소나무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무들과 배경이 되는 먼 산까지도 한 장의 이미지로 담게 되는 것이다. 카메라는 특별한 조작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주어진 성능만큼만 보여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상황과 카메라에 담기는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의도하는 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인 로버트 카파는 이렇게 조언했다.



‘자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피사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라.’

우리는 우리가 담고자 하는 대상에게 다가서야 한다. 그 대상이 사물이건, 사람이건 상관없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멀리서 뒷짐지고 서서 구경만 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망설임 없이 다가가고 이정도면 되겠지 싶을 때 한 걸음 더 가까이 근접해보자. 내가 찍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뒤 빼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제하고, 꼭 살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표현해야 할 대상에만 집중하여 단순화 시킬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찍힌 결과물이 조금씩 일치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다가서고, 한 번 더 셔터를 눌러보기를 바란다.

이제 간단하게나마 사진에게 다가가는 마음의 준비가 조금 되었다면, 다음 글에서는 직접 다이얼을 돌리고 초점을 맞추어 가며 보다 본격적으로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